

죽음의 조 피할까... 흥명보호, 6일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서 조 추첨식
 흥명보호 감독, 조 추첨식 후 현지답사 예정
 포트2 배정...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 목표

흥명보호의 운명이 달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3일 흥명보호 축구대표팀 감독은 조 추첨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조 추첨식 이후엔 월드컵 기간 축구대표팀이 머물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조별리그 경기장을 답사한다.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흥 감독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조 추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북중미 월드컵은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도입했던 32개국 체제에서 16개국 늘어난 48개국 체제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다.

현재까지 48개국 가운데 42개국이 확정됐다.

나머지 6개 팀 중 4개 팀은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 2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PO)로 결정된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는 4개 팀씩 12개 조로 치러지며, 각 조에는 포트 1~4에서 한 팀씩 배정된다.

한국은 11월 FIFA 랭킹 기준 22위를 기록, 사상 처음 포트2에 올라 포트1, 포트3, 포트4 팀과 경쟁한다.

당연히 같은 포트2의 크로아티아(10

위), 모로코(11위), 콜롬비아(13위), 우루과이(16위), 스위스(17위), 세네갈(19위), 에콰도르(23위), 오스트리아(24위)를 피하게 됐다.

또 같은 포트2인 것은 물론 유럽을 제외하고는 한 조에 같은 대륙 소속팀이 두 팀 이상 포함되지 않는 원칙으로 일본(18위), 이란(20위), 호주(26위)와도 만날 수 없다.

포트1엔 개최국 미국(14위), 멕시코(15위), 캐나다(27위)를 포함해 스페인(1위), 아르헨티나(2위), 프랑스(3위), 잉글랜드(4위), 브라질(5위), 포르투갈(6위), 네덜란드(7위), 벨기에(8위), 독일(9위)이 포함됐다.

홈 이점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열세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만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지난 9월 흥명보호는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해 각각 2-0 승리,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다음으로 포트3에는 노르웨이(29위), 파나마(30위), 이집트(34위), 알제리(35위), 스코틀랜드(36위), 파라과이(39위), 튀니지(40위), 코트디부아르(42위), 우즈베키스탄(50위), 카타르(51위), 사우디아라비아(60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이 들어갔다.

같은 아시아 대륙 소속인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같은 조에 편성될 수 없다.



흥명보호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소감을 묻는 특파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의 노르웨이,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의 이집트 등이 주요 경계 대상이고, 파나마, 스코틀랜드, 남아공 등과 목이 길 기대한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포트4에는 요르단(66위), 카보베르데(68위), 가나(72위), 퀴라소(82위), 아이티(84위), 뉴질랜드(86위)가 있고, 유럽 PO 4개 팀과 대륙 간 PO 2개 팀이 포함된다.

요르단은 만날 수 없고, 나머지 팀과는 모두 약체로 분류되지만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6개 팀이다.

특히 유럽 PO에서 본선 진출을 노리는 이탈리아(12위), 덴마크(21위), 튀르키예(25위)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 /뉴시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는 각 조 1, 2위 24개 팀과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까지 총 32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사상 처음 진행되는 48개국 체제의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원정 8강 진출을 바라본다.

지난해 9월 축구대표팀 부임 당시 흥 감독은 “원정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가장 좋은 성적은 16강이었는데, 그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한 바 있다.

흥명보호가 운명의 조 추첨식에서 ‘죽음의 조’를 피하고 ‘행운의 조’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영광군, 전지훈련 유치 평가 3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4~2025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장려상(기관표창)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해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 추진과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 활동의 성과를 다시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지훈련, 전국단위 대회 등 스포츠마케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영광군은 유치 인원, 홍보 실적, 관광·문화시설 활용도, 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광군은 평가기간동안 축구, 농구, 탁구 등 6개 목에 걸쳐 12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전국대학체군도

대회,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 등 9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10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 약 102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장려상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임대 20백만 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영광군수는 “영광군이 3년 연속 전남도 평가에서 수상한 것은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 전략과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2026년에는 스포츠대회 개최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에서 영광군 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선 타석 GDR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영 3년지 재건축비사업조합
 세영 GS건설
 세영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사진 =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 2+1년 45억원에 잔류

2016년·2021년에 이어 3번째 FA 계약... “도전 끝나지 않았다”

프리이전트(FA) 시장에 나온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이 잔류 계약을 마무리했다.

KIA는 4일 양현종과 계약 기간 2+1년, 총액 4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10억원,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 45억원의 조건이다.

양현종은 KIA와 FA 계약을 마친 후 구단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운드에 올랐던 때 순간마다 보내주시는 타이거즈 팬들의 합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다시 한 번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시즌 통합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가 올 시즌 8위로 추락한 KIA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팀의 주전 유격수 박찬호(두산 베어스), 베테랑 중심 타자 최형우(삼성 라이온즈), 포수 한승택(KT 위즈)을 모두 다른 팀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팀의 상징인 양현종을 잡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광주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전체 1순위로 KIA에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양현종은 올해까지 18시즌을 한 팀에서 뛰었다.

양현종은 KIA에서만 통산 543경기에 등판, 2656%이닝을 던지며 186승 127패 9홀드 평균자책점 3.90을 작성했다. 올 시즌에는 30경기에서 153이닝을 던지며 7승 9패 평균자책점 5.06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양현종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한 2021시즌을 제외하고 KIA에만 몸담으며 솔한 대기록을 썼다.

매 시즌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리그 최다 선발 출장 1위(442경기), 최다 선발승 1위(184승), 최다 탈삼진 1위(2185개), 역대 최다 이닝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꾸준함을 선보인 양현종은 2024시즌 리그 최초로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를 달성했고, 2025시즌에는 리그 최초로 11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의 금지탑을 쌓았다.

KIA와 최대 3년 계약을 맺은 양현종은 KBO리그 역대 두 번째 통산 3000이닝, 최다 이닝(송진우 3003이닝), 최다 승(송진우 210승) 기록 도전도 KIA에서

이간다.

양현종은 2016년, 2021년에도 FA가 돼 KIA 잔류를 택했다.

해의 진출을 고민하던 2016년 12월에는 계약기간 1년, 총액 22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2021년 12월에는 계약기간 4년, 총액 103억원에 사인했다.

1988년생인 양현종은 계약 기간을 꼭 채운 2028년이 되면 만 40세가 된다. 양현종은 사실상 KIA에서만 뛴 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현종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동안 우승도 해보고 많은 기록을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유니폼을 벗는 순간까지 꾸준한 모습을 타이거즈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내는 선수가 되겠다. 베테랑 선수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다”며 “선수단 모두와 힘을 합쳐 팀이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